

천주교 캔버라대교구 한인 성당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Archdiocese of Canberra and Goulburn

(녹) 연중 제 25 주일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 한가위 합동위령미사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 안드레아
 주일미사 : 오후 3시
 고해성사 : 미사 전 30분
 유아세례 : 이메일로 문의 주세요.
 (이 메 일 : canberra.kcc@gmail.com)
 주 소 : South Belconnen Parish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안내전화 : 0490-795-346
 홈페이지 : <https://www.kcccanberra.org/>
 성모님과 함께 하는 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온라인(Zoom)
 (문의 : 김우경 가브리엘라)
 퀸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일시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 3 West Ave, Queanbeyan, NSW

[교황님 기도지향 - 9월]

복음화 지향 : 소외되어 살아가는 이들
 사회에서 소외되어 비인간적 생활 환경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제도 안에서 홀대받지도 않고 결코 하찮은 존재로 여겨지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전례 오늘은 연중 제25주일입니다. 의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맨 나중에 온 일꾼에게도 맨 먼저 온 일꾼과 똑같은 품삯을 주십니다. 아버지의 길은 우리의 길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스며 있는 지혜에 마음을 열게 하시어, 이른 아침부터 아버지의 포도밭에서 일한 수고가 헤아릴 수 없는 영예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제1독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55,6-9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다.>

화답송 시편 145(144),2-3.8-9.17-18 (◎ 18 참조)
 ◎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1,20ㄷ-24.27ㄱ
 <나에게는 삶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환호송 사도 16,14 참조
 ◎ 알렐루야.
 ○ 주님, 저희 마음을 열어 주시어 당신 아드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0,1-16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요?>

영성체송 시편 119(118),4-5 참조
 주님은 규정을 내리시어 어김없이 지키라 하셨나이다. 당신 법령을 지키도록 저의 길을 굳건하게 하소서.

영성체 후 묵상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주님께서는 오후 다섯 시가 될 때까지 아무도 사 가는 사람이 없어 장터에 서 있는 일꾼을 불러 포도밭에서 일하게 하시고, 품삯을 후하게 주시는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밭 임자에게 투덜거리는 일꾼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 오늘의 복음 묵상 - 정천 사도 요한 신부 ♣

구원

오늘 복음은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입니다.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찾으러 이른 아침부터 집을 나선 주인은 일할 사람들을 발견하자 한 데나리온으로 품삯을 합의하고는 그들을 포도밭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주인은 일꾼이 모자랐는지 계속해서 사람들을 찾으러 다닙니다. 아마도 수확철이었나 봅니다. 오전 아홉 시, 열두 시, 오후 세 시, 심지어 저녁때가 가까운 다섯 시에도, 주인은 만나는 사람마다 정당한 품삯을 약속하며 자기 포도밭으로 보냅니다. 이제 해가 지고 주인은 관리인을 시켜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러 합니다. 그런데 품삯을 주는 순서가 일꾼들을 불러 모은 순서와는 정반대로 진행됩니다. 오후 다섯 시부터 한 시간가량 일한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모습을 본 나머지 일꾼들은 그보다 더 받으려니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세 시간, 여섯 시간, 아홉 시간, 심지어 이른 아침부터 열두 시간을 고박 일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어집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밭 주인은 하느님이십니다. 포도밭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꾼들을 찾아 헤매듯, 하느님께서도 당신 나라의 구원을 선사할 사람들을 끊임없이 모으러 다니십니다. 그러한 부르심에 어떤 방식으로든 응답하고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 모두는 하느님 나라의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어떤 차등을 두지 않으며 모든 이에게 똑같습니다. 문제는 하느님의 구원 방식이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데도, 우리가 우리의 상식 수준에만 머무르려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고, 너희 길은 내 길과 같지 않다"(제1독서). 노동 시간에 맞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항의하는 일꾼들처럼, 오랜 기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자신이 이제 갓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 것을 혹시 불편해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느님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우리는 모두 '한 데나리온'이라는 구원을 약속받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간에 따라 두 데나리온이나 이분의 일 데나리온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구원으로 충분합니다. 하느님의 자비에 시기하기보다는, 우리가 모두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오히려 감사합시다.

| 연중 제 25 주일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복음 필사 |

내 마음의 성경
한글구절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
아벨 그리머 작

골짜기가 첫째 되고 첫째가 골짜기 될 것이다(마태 20,16).

.....
.....
.....
.....

※이번 주일 복음을 읽고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직접 필사해보세요.



제 109 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9 월 24 일)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한국 주교회의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정순택 주교님께서 담화문을 각각 발표하셨습니다.

‘이주할지 또는 머무르지 선택할 자유’ (Free to choose whether to migrate or to stay)라는 주제의 담화문 통해 교황님께서는 모국이든 타국이든 우리가 미래를 이루어갈 자리로 선택한 어디에서든, 중요한 것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배제하지 않으며 언제나 모든 이를 환영하고 보호하며 증진하고 통합할 준비가 된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교황님께서는 이주가 어떤 경우에도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가 되도록 보장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이주민 저마다의 존엄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부름받은 교회인 우리가 시작한 이 시노달리타스의 길은, 수많은 이주민과 난민을 포함한 가장 힘없는 이들 안에서 우리 형제자매로서 사랑받고 보살핌받아야 할, 우리 여정의 특별한 동반자를 알아보도록 우리를 이끌어준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정순택 주교님께서서는 사회의 발전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가깝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교님께서서는 우리가 새로운 것에 대하여 기대도 하지만 두려움도 가지듯이, 이 땅을 밟는 많은 이주민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며, 하느님의 은총과 공동체의 사랑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인이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한다는(루카 7,41-43 참조)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들이 가진 그 사랑의 마음으로, 슬픔과 아픔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향한 위로와 사랑을 보여 준다면 우리가 사라지지 않는 참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 담화문 전문]

<https://tinyurl.com/5n7prpx>

[정순택 주교님 담화문 전문]

<https://tinyurl.com/4tzcrvs5>

교황청 복음화부 세계복음화부서 제 44 차 세계 관광의 날 담화 (9 월 27 일)

올해 제 44 차 세계 관광의 날을 맞이하여 교황청 복음화부 세계복음화부서 살바토레 리노 피시켈라 대주교님께서 세계 관광 기구(UNWTO)가 제안한 **‘관광과 녹색 투자’**라는 주제의 담화문을 통해 국가, 단체들 그리고 관련된 많은 기관이 이에 동참하기를 바라시면서 인간 삶의 본질적 목적인 피조물 보호를 더욱 효율적이고 긍정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피조물 보호를 위한 지속 가능한 투자, △그리스도인의 환대, △지속 가능한 경제와 인간 존엄, △문화적 영적 투자와 보존, △공동의 집을 위한 책임 있는 관광, △중요한 자원인 관광 종사자들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담화문 전문] <https://www.cbck.or.kr/Notice/20230344?page=3&gb=K1200>

성 김대건 안드레아 순교일에 교황님께서 대한민국 교우들에게 전하는 말씀

9 월 16 일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대한민국 교우들에게 성 김대건 안드레아 순교일을 맞아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이 날 교황님께서는 성 베드로 대성전의 외부에 설치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상도 축성하셨습니다. (주보 4 면 참고)

[교황님 말씀] <https://www.cbck.or.kr/Notice/20230484?gb=K1200>

2024 년 캔버라 한인성당 이스라엘·요르단 성지순례 참가자 모집

[순례성지 및 시기] 이스라엘과 요르단, 2024 년 9 월 중 10 박 11 일
 [주관사] 가톨릭여행사 (프로그램 소개링크: <https://url.kr/sh24v3>)
 [참가비] 1 인당 525 만원 (※ 환율과 예약시점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신청기간] 2023 년 9 월 30 일(토)까지 [접수 및 문의] 주정자 루치아





| 연중 제 25 주일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주간실천 |

피조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기후변화로 피해받는 난민과 환경을 위해 기부하기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BCK>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탄소발자국 줄이기

주기적인 차량 점검(공기압 체크) 하기
 → 6.87kg의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BCK>

우리 공동체에서는 공동의 집인 지구와 환경생태 보호를 위해 일회용 제품 사용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음식나눔, 다과 등의 행사시 개인용 텀블러를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안소근 실비아 수녀의 구약 중주 20 강 예레미야서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예레미야는 심판을 선고하도록 부름받습니다.

성경과외 해주는 신부 [가톨릭성경통독 53 강] 악마와 거러를 한 임금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열왕기 4 부 | 1 열왕 15-16 장

CPBC 뉴스

성 김대건 신부 순교 177 주년, 바티칸에 성상 세워져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성 베드로 대성전 외벽에 역사상 처음 세워진 동양 성인의 성상

□ 미사 참례자수

9 월 10 일	성인 47 아이 17	9 월 17 일	성인 60 아이 17
----------	-------------	----------	-------------

□ 우리들의 정성 (9 월 16 일(토)~22 일(금))

구민식	권묘순	김요한	남궁영근	손재호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이국원	이지영	조성민	조성희	주정자			
교무금 \$570 (13 가정) / 봉헌금 \$395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 BSB: 062786 / Account Number: 000027424

□ 봉사자 안내 ※ 독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김우경 가브리엘라 - 전례분과)

	9월24일 연중제25주일(세계이주민과난민의날)	10월1일 연중제26주일
독서	허준 안토니오, 이민정 글라라	주정자 루치아, 이재희 루치아
예물봉헌	마르코반	요한반

- 미사 후 성당 뒷정리: (24 일) 마르코반 → (10 월 1 일) 요한반 → (8 일) 루카반 → (15 일) 마태오반
- 미사 후 친교 (매월 첫째주 식사, 셋째주 간식): (24 일-한가위) 전신자 음식나눔 → (10 월 1 일-식사) 루카반
- 묵주기도성월 미사 전 묵주기도: (10 월 1 일) 루카반 → (8 일) 마르코반 → (15 일) 마태오반 → (22 일) 요한반

□ 미사성가 안내 (가사/악보 보기, 듣기, 다운로드 - 링크 클릭)

	입 당	예 물	영 성 체	파 견
9 월 24 일	426 주님의 집에 가자 할 때	512 주여 우리는 지금	156 한 말씀만 하소서	286 순교자의 믿음
10 월 1 일	21 지극히 전능하신 주여	217 정성어린 우리 제물	166 생명의 양식	63 온세상에 전파하리

♥ 김이준 미카엘(어린이), 김우경 가브리엘라(마태오반), 김태룡 가브리엘(마르코반, 29 일)의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